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usband's Emotional Support and Mother-teacher Partnership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이선영(Sun young Lee), 안선희(Sun Hee Ah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husband's emotional support and mother-teacher partnership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216 mothers with children(aged 4-5years). Husband's emotional support was measured by the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 R. R. Abidin, 1988) revised by R. R. Abidin and J. F. Brunner(1995). Mother-teacher partnership was measured using the Caregiver-Parent Partnership Scale(A. M. Ware, B. Barfoot, A. S. Rusher & M. T. Owen, 1995) revised by M. T. Owen, A. M. Ware and B. Barfoot(2000). Parental Stress was measured by the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R. R. Abidin, 1995) revised by M. E. Haskett, L. S. Ahern, C. S. Ward and J. C. Allaire(2006).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 of husband's emotional support was higher than average and the mean score of mother-teacher partnership was an average level. Parenting stress was lower than average.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al stress according to number of children and mother's educational level. Third, husband's emotional support and mother-teacher partnership were influenced by maternal parental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mportant because they show mothers, fathers, and teachers ways to reduce maternal parental stress.

▲주제어(Key words): 남편의 정서적 지지(husband's emotional support), 어머니-교사협력(mother-teacher partnership),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maternal parenting stress)

I. 서론

어머니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대상이자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존재로서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자녀를 대하는 직접적인 행동은 물론 신념이나 정서 역시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부모됨의 태도는 영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며(K. Lee & S. Seo, 2012; H. Lim, 2014),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등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Y. Bae & J. Lim, 2014; G. Buodo, U. Moscardino, S. Scrimin, G. Altoè, & D. Palomba, 2013; S. Kim, H. Choi, K. Jeong, & Y. Lee, 2012; L. Liu & M. Wang, 2015; E. Yang & H. Choi, 2013).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으며(K. A.

* 본 논문은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이며, 2016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Sun Hee Ah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82-2-961-9239, E-mail: shahn@khu.ac.kr

Crnic & C. Low, 2002; M. Kim & H. Moon, 2005), 이는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위축하게 할 수 있다(H. Kim, 2013).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인 사회·정서행동을 증가시키고 또래 유능성 및 사회적 유능감을 낮춘다고 보고된다(K. Dubois-Comtois, E. Moss, C. Cyr, & K. Pascuzzo, 2013; S. Kim et al., 2012; M. Östberg & B. Hagekull, 2013; L. L. Stone, S. H. Mares, R. Otten, R. C. Engels, & J. M. Janssens, 2016).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추가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Y. Song, J. Lee, & C. Kim, 2011; M. Yu & K. Kim, 2016).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유아기는 자기주장이 강해지며 반항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시기로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로 인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며(M. Kim, 2005), 특히 자녀가 학령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학습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게 된다(J. Lee, 2008). 또한 어머니는 이러한 유아기의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유능성과 관련하여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된다(W. Yu, J. Choi, & S. Lee, 1998).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유아기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느끼는 스트레스로 주변 사람의 지지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접근성을 가지는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지지는 크게 가정 내와 가정 밖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로는 남편을 들 수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확대가족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최근에는 핵가족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조부모 및 친인척 등의 도움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남편의 도움이 증가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유교사상의 만연으로 주로 남성들은 바깥일을 담당하고 여성은 육아 등의 집안의 일은 담당하는 분위기였으나, 점차 맞벌이 가족의 증가 및 여성의 인권 신장 등으로 인해 양육에 있어서 남편이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편의 지지는 크게 육체적·물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편의 육체적·물리적 지지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나 자녀생활지도 및 가사

에의 도움 정도가 어떠한지 등의 개념을 말한다(K. Choi, 1991). 이러한 남편의 육체적인 도움은 배우자의 삶의 질 및 자기효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C. J. Erdwins, L. C. Buffardi, W. J. Casper, & A. S. O'Brien, 2001; J. Park, C. Park, J. Kim, H. Ryu, J. Yoon, & K. Nakajima, 2011), 배우자가 자녀를 긍정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도록 하며(S. Seo & D. Lee, 20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체적 활동이 증가하고 훈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줌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준다(S. Lee & H. Min, 2007).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역시 감소시킨다고 보고된다(J. Jung, 2013).

한편,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남편이 자녀양육 문제를 배우자와 함께 의논하고 배우자를 어머니로서 얼마만큼 인정하고 격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배우자에게 강력한 지지원으로 작용하는데, 자녀양육 문제에 있어서 남편의 격려는 어머니로부터 자신감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심리상태는 자녀를 대하는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는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의 삶의 질 및 양육효능감이 증가하며(S. Chae, H. Kang, H. Lee, & H. Shin, 1999; J. Lee & Y. Choi, 2010), 이는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 Jeon & N. Yang, 2013). 또한,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온정과 격려를 많이 사용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 Kim & H. Choi, 2007).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정서적인 지지는 부인에게 안정적인 심리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한다(S. Chae et al., 1999; B. P. Don & K. D. Mickelson, 2012; S. Kim & H. Choi, 2007). 요컨대 남편의지지, 즉 육체적·물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모두 배우자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받는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편의 육체적·물리적 지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서적 지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서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R. S. Lazarus, 1966)으로 남편의 육체적·물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어머니의 부정적인 심리·정서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S. Chae et al., 1999) 이를 확인해보려 하였다. 즉, 가정 내 지지인 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가정 밖에서 받을 수 있는 지지체제로 유아교사를 들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더불어 2012년 영아 무상보육 및 만 5세 누리과정, 2013년 만 3-4세 누리과정이 실시됨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지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 Bronfenbrenner(1986)의 생태학적 체계에 따르면, 중간체계 즉, 어머니-교사와의 관계는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와 교사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유아의 올바른 발달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R. J. Bulotsky-Shearer, X. Wen, A. M. Faria, D. L. Hahs-Vaughn & J. Korfmacher, 2012; X. Wen, R. J. Bulotsky-Shearer, D. L. Hahs-Vaughn & J. Korfmacher, 2012). 반면, 어머니와 교사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경우에는 가정과 기관에서의 양육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당 유아는 혼란을 느낄 수 있다(Y. Kim, J. Park, & S. Ahn, 2012). 따라서 어머니와 교사가 원활한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머니-교사협력이란, 질 높은 유아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어머니와 교사가 협력하여 유아교육 활동 및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교육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S. Ahn, 2004; Y. Kim et al., 2012)으로, 이를 통해 어머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J. L. Epstein(2001)은 부모 참여를 하는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발달 및 학습을 보다 잘 지원해준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와 교사와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M. T. Owen, A. M. Ware and B. Barfoot(2000) 역시 어머니-교사 협력은 어머니가 지지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교사와의 의사소통, 수업참관 및 보조교사 등을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자녀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해 듣고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어 자녀에게 의미있고 적절한 양육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폭행사건 등으로 인해 어머니-유아교육기관 교사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교사 협력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머니의 기관에의 협력 및 교사와의 의사소통은 교사-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촉진할(W. Im, S & Ahn, 2011) 뿐 아니라 어머니와 교사가 서로를 이해하는 역할(D. Diffily, 2003; M. Drugli & A. Undheim, 2012)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교사협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 양육 관련 지식 및 정보의 부족(J. Kim, S. Moon, Y. Kim, & S. Ahn, 2013),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및 어머니-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R. R. Abidin, 1992), 그리고 취업모의 경우에는 타인양육에 따른 죄책감(K. Kim & H. Kang, 1997)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는 교사와의 협력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유아 개개인에 대한 평상시의 생활 및 태도, 문제점 등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양육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구체적인 조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의 유아교육기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자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사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교수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경감될 수 있다(M. Jeong, M. Han, & Y. Han, 2010; Y. Kang & J. Kim, 2012). 또한 취업 중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머니-교사협력으로 인해 타인에게 전적으로 양육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함께 참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양육죄책감을 다소 덜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머니-교사협력의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머니-교사협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어머니-교사협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S. Lee, 2010)가 나타나는 등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 및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추가출산에도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는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지 중에서도 가정 내의 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가정 밖의 유아교사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올바른 발달 및 안녕을 위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유아교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남편의 정서적 지지, 어머니-교사 협력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일반적 배경변인(자녀수, 어머니 연령, 취업 여부, 최종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유아성별은 남아가 99명(45.8%), 여아가 117명(54.2%)이며, 유아의 연령은 만 4세가 85명(39.4%), 만 5세가 131명(60.6%)이었다. 자녀수는 1명이 45명(20.8%), 2명 이상이 171명(79.2%), 출생순위는 첫째가 101명(46.8%), 둘째 이상이 115명(53.2%)이었다. 재원기관은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가 81명(37.5%), 어린이집 재원이 135명(62.5%)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151(69.9%)명, 40대가 65명(30.1%)으로 30대가 많았으며, 취업한 어머니는 133명(61.6%), 취업

하지 않은 어머니가 83명(38.4%)으로 취업한 어머니의 비율이 더 컸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29명(13.4%), 전문대 졸업이 43명(19.9%), 대학교(4년제) 졸업이 114명(52.8%), 대학원 수료 이상이 30명(13.9%)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250만원 미만인 9명(0.5%),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인 42명(23.1%), 35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인 45명(20.8%), 450만원 이상 550만원 미만인 44명(20.4%), 5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인 37명(17.1%), 650만원 이상이 39명(18.1%)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최종학력은 고졸이하가 26명(12.0%), 전문대 졸업이 25명(11.6%),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30명(60.2%), 대학원 수료 이상이 35명(16.2%)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아버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연구도구

1) 남편의 정서적 지지

R. R. Abidin(1988)이 개발한 양육협력도구(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를 R. R. Abidin and J. F. Brunner(1995)가 수정한 도구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남편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의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남편과 나는 좋은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본다.', '내 남편과 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눈다.', '우리 아이가 어떠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내 남편과 나는 같은 목표를 갖는다.' 등의 문항이 해당된다.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남편의 협력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의 alpha값은 .96으로 산출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16)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N(%)			N(%)
Child's sex	boy	99(45.8)	Child's age	4 years	85(39.4)
	girl	117(54.2)		5 years	131(60.6)
Number of children	1	45(20.8)	Birth order	1	101(46.8)
	over 2	171(79.2)		over 2	115(53.2)
Type of institute	kindergarten	81(37.5)	Mother's age	30s	151(69.9)
	daycare centers	135(62.5)		40s	65(30.1)
Mother's employment	employed	133(61.6)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9(13.4)
	non-employed	83(38.4)		college	43(19.9)
Family income (10,000 won)	under 249	9(0.5)		university	114(52.8)
	250~349	42(23.1)		graduate school	30(13.9)
	350~449	45(20.8)	high school	26(12.0)	
	450~549	44(20.4)	college	25(11.6)	
Family income (10,000 won)	550~649	37(17.1)	Father's education level	university	130(60.2)
	over 650	39(18.1)		graduate school	35(16.2)

2) 어머니-교사협력

A. M. Ware, B. Barfoot, A. S. Rusher and M. T. Owen(1995)이 제작하고 M. T. Owen, A. M. Ware and B. Barfoot(2000)이 수정한 The Caregiver-Parent Partnership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정보공유, 정보추구, 상호관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각 3문항으로 총 14 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의 alpha값은 각각 .80, .71, .76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협력 총점의 Cronbach의 alpha값은 .86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R. R. Abidin(1995)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PSI-SF)를 M. E. Haskett, L. S. Ahern, C. S. Ward and J. C. Allaire(2006)가 다시 요인분석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과 양육 관련 스트레스(childrearing stress)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12문항, 24문항으로 총 36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고통, 양육관련 스트레스의 Cronbach의 alpha값은 각각 .88, .91이며, 양육스트레스 총점의 Cronbach의 alpha값은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6곳을 임의로 표집하였다. 원장 및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후 협조를 구하였으며, 각 반의 담임교사를 통해 만 4세, 5세반의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30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배부한 설문지 중 약 79%인 241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내용의 부실 및 누락, 연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설문 25부를 제외한 총 216부의 설문지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및 F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

남편의 정서적 지지, 어머니-교사협력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편의 협력의 척도평균은 3.69(SD=.75)로 나타나, 어머니는 남편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에서 협력한다고 지각하였다. 어머니-교사협력의 척도평균은 3.09(SD=.57)로 어머니는 교사와 보통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정보공유의 척도평균은 3.45(SD=.67)로 보통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정보추구는 3.50(SD=.68)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상호관계는 2.60(SD=.69)으로 보통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어머니-교사협력은 정보추구, 정보공유, 상호관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79.54(SD=17.44)이며, 문항수로 나눈 점수는 2.21(SD=.48)로 5점 만점에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16)

Variables	sub-variables(items)	M(SD)	Min	Max	M(scale)(SD)
	Husband's emotional support(20)	73.81(15.02)	26	150	3.69(.75)
Mother-teacher partnership	sharing informaion(5)	17.26 (3.37)	5	29	3.45(.67)
	seeking information(3)	10.49 (2.04)	3	18	3.50(.68)
	adult relations(6)	15.57 (4.13)	6	26	2.60(.69)
	Total(14)	43.32 (8.00)	15	66	3.09(.57)
Maternal parenting stress	Personal Distress(12)	31.16 (8.27)	12	51	2.60(.69)
	Childrearing Stress(24)	48.38(11.47)	28	88	2.02(.48)
	Total(36)	79.54(17.44)	43	134	2.21(.48)

점인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워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고통의 평균은 31.16($SD=8.27$)이고, 문항수로 나눈 점수는 2.60($SD=.69$)으로 3점에 가까워 보통정도였다. 양육관련 스트레스는 평균 48.38($SD=11.47$)이고 문항수로 나눈 점수는 2.02($SD=.48$)로 나타나,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자녀수, 어머니 연령, 취업여부, 최종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녀수는 2명 이상인 어머니($M=80.81$, $SD=17.45$)가 자녀수가 1명인 어머니($M=74.73$, $SD=16.77$)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어머니($M=79.61$, $SD=17.30$)가 40대 어머니($M=79.38$, $SD=17.91$)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미취업모($M=80.72$, $SD=17.27$)가 취업모($M=78.80$, $SD=17.57$)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학교(4년제) 졸업의 어머니와 대학원 수

료 이상의 어머니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고졸이하($M=83.62$, $SD=15.68$), 전문대졸 이하($M=79.42$, $SD=19.13$) 및 대학교(4년제) 졸업($M=80.89$, $SD=16.50$)인 어머니가 대학원 수료 이상($M=70.67$, $SD=17.9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더 높았다.

3.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 배경변인, 남편의 정서적 지지, 어머니-교사협력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가정의 평균 월수입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양육스트레스 총점($r=-.20$, $p<.01$)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양육관련 스트레스($r=-.21$, $p<.01$)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 총점($r=-.46$, $p<.001$)과

Table 3. The difference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N=216)

Variable	Group	N	M(SD)	t	F
Number of children	1	45	74.73(16.77)	-2.09*	
	over 2	171	80.81(17.45)		
Mother's age	30s	151	79.61(17.30)	0.09	
	40s	65	79.38(17.91)		
Mother's employment	employed	133	78.80(17.57)	-0.79	
	non-employed	83	80.72(17.27)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a	83.62(15.68)	3.46*	
	college	a	79.42(19.13)		
	university	a	80.89(16.50)		
	graduate school	b	70.67(17.96)		

* $p < .05$

주) 사후검정: Duncan, $a>b$,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모두 등분산이 가정됨.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16)

	1	2	3	4	5	6	7	8	9
1. Family income	1								
2. Husband's emotional support	.15*	1							
3. Mother-teacher partnership	.01	.27***	1						
4. sharing information	-.06	.26***	.84***	1					
5. seeking information	.03	.25***	.77***	.59***	1				
6. adult relations	.04	.19**	.87***	.52***	.52***	1			
7. Maternal parenting stress	-.20**	-.46***	-.35***	-.34***	-.24***	-.28***	1		
8. Personal Distress	-.12	-.40***	-.41***	-.37***	-.28***	-.36***	.84***	1	
9. Childrearing Stress	-.21**	-.42***	-.23**	-.25***	-.17*	-.16*	.92***	.55***	1

* $p < .05$, ** $p < .01$, *** $p < .001$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개인적 고통($r=-.40, p<.001$), 양육관련 스트레스($r=-.42, p<.001$)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교사협력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교사협력 총점은 양육스트레스 총점($r=-.35, p<.001$)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개인적 고통($r=-.41, p<.001$), 양육관련 스트레스($r=-.23, p<.01$)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는 양육스트레스 총점($r=-.34, p<.001$)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개인적 고통($r=-.37, p<.001$), 양육관련 스트레스($r=-.25, p<.001$)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정보추구는 양육스트레스 총점($r=-.24, p<.001$)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고통($r=-.28, p<.001$), 양육관련 스트레스($r=-.17, p<.05$)와 부적상관이었다. 상호관계는 양육스트레스 총점($r=-.28, p<.001$)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개인적 고통($r=-.36, p<.001$), 양육관련 스트레스($r=-.16, p<.05$)와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Durbin-Watson값,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 및 공차한계(Tolerance)값을 산출한 결과, Durbin-Watson값은 2.12로 0과 4의 사이에 존재하였고, 분산팽창인수 값은 1.00~1.14로 10미만이었으며, 공차한계 값은 .88~.99로 .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앞서 양육스트레스 총점에 차이를 보인 자녀수 및 어머니의 최종학력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가정의 평균 월수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 1에 투입하였다. 모형 2에는 독립변인인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는 어머니-교사협력을 투입하였다.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투입한 결과($F=18.00, p<.001$), 설명력은 18% 증가하여 25%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교사협력을 투입한 결과($F=18.84, p<.001$), 설명력은 6% 증가하여 총 31%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남편의 정서적 지지($\beta=-.37, p<.001$), 어머니-교사협력($\beta=-.25, p<.001$)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보통 이상 수준의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J. Lee and Y. Choi(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편은 자녀양육에 있어 부인과 함께 대화하고 해결하는 등의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교사협력은 보통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정보추구, 정보공유, 상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교사에게 자녀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묻는 정보추구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었으며, 가정에서의 자녀의 정보를 교사에게 공유하는 정보공유 및 교사와의 정서적, 협력적인 상호관계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

Table 5. Effects of Variables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N=216)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Constant)	89.81 ^{***}		120.59 ^{***}		138.19 ^{***}	
Number of children	6.07	.14 [*]	6.13	.14 [*]	6.17	.14 [*]
Mother's education level	-2.48	-.13	-.81	-.04	-.73	-.04
Family income	-1.72	-.17 [*]	-1.23	-.12	-1.32	-.13 [*]
Husband's emotional support			-.51	-.44 ^{***}	-.43	-.37 ^{***}
Mother-teacher partnership					-.54	-.25 ^{***}
R ² (adjusted R ²)	.07(.06)		.25(.24)		.31(.29)	
ΔR^2	.07		.18		.06	
F	5.43 ^{**}		18.00 ^{***}		18.84 ^{***}	

* p < .05, ** p < .01, *** p < .001

주) 자녀수는 더미 코딩함 (1명 : 0 / 2명 이상 : 1)

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정보추구, 정보공유, 상호관계 순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D. Jeong(2014)의 연구와 일치하며,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W. Im and S. Ahn(2011)의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어머니와 교사는 가정에서의 유아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공유를 하는 것(W. Im & S. Ahn, 2011)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와 교사의 정서적, 협력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상호관계는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유아교육기관에의 재능 기부 및 교사의 유아를 지도하는 방식 등에 대한 칭찬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등의 어머니-교사의 협력적인 관계형성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어머니-교사협력은 전체적으로 보통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에 대한 기관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어머니-교사 간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이를 격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G. Kim and H. Kim(2013), S. Kim and H. Choi(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고통은 보통수준이었으며, 양육관련 스트레스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특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에 비해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자녀의 특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에 관한 관리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Y. Song and Y. Kim(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어머니가 자녀수가 1명인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 총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자녀가 1명인 어머니보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L. Kim and C. Yoon(2000), S. Sohn(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사 및 자녀양육에 있어서 신체적인 노동 및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도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 결과

는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경우 대체적으로 자녀수가 많아 자녀양육에 있어 보다 큰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S. Sohn(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자녀수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양육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령이 낮은 어머니가 연령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연구(K. Ryu, Y. Kim, & Y. Song, 2009)와도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지식에 차이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겠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K. Kim, H. Doh, S. Kim and S. Rhee(2010), J. Lee and Y. Wui(2012) 등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체가 아니라 가정의 월수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Y. Song, M. Lee, & H. Chun, 2014).

다음으로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원 수료 이상의 어머니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의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J. Kwon, M. Chung, & S. Park, 2012; H. Park & H. Moon, 2013)와 다른 결과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L. Kim & C. Yoon, 2000)와도 상반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S. Brummelte, R. E. Grunau, A. R. Synnes, M. F. Whitfield and J. Petrie-Thomas(2011), Y. Jang and J. Park(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대해 보다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 및 우울을 보다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 졸업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인 연구들(L. Kim & C. Yoon, 2000)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수료 이상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어머니가 보다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독자적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함께 결합되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여, 이에 따른 추후 검정이 필요하다.

셋째,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과에 앞서 일반적 배경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가정의 평균 월수입,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정의 평균 월수입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의 월수입은 양육스트레스의 총점 그리고 양육관련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정의 월소득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M. Chung & M. Lee, 2000; C. X. Jiun, W. M. Jaafar, & N. M. Ghazali, 2016)를 지지하는 것으로 가정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Y. Jang & J. Park, 2009)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다양한 스트레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 나타나는 어려움을 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양육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협력은 양육스트레스 총점 그리고 하위요인인 개인적 고통 및 양육관련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S. Chae et al.(1999), K. Kim et al.(2010) 등의 연구를 지지한다. 남편이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자와 대화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배우자가 양육에 있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나 부담감을 낮춤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교사협력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교사협력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과 양육스트레스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 간의 관계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교사가 가정과 기관에서의 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가 유아교육기관에 재능기부를 하는 등의 참여를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교사의 관계,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교사에 대한 신뢰감 및 교사와의 협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A. L. Moen, S. R. Holmes, S. A. Bhaatia and S. M. Sheridan(2013)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어머니-교사 간의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 모두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협력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함을 의미한다. 먼저, 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는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양육에 지친 부인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쳐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S. Chae et al., 1999; S. Kim & H. Choi, 2007)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의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육체적으로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양육에의 참여 보다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 배우자와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정서적인 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남편보다 어머니가 많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배우자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현재 상황이나 배우자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에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는 부부의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서적 지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구체적인 실습 위주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머니-교사협력 역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고 자녀양육이나 유아발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M. Lee(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가 교사를 신뢰하고 친밀하게 느끼며 교사와 협력을 많이 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는 J. Kim et al.(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의 재능기부 등의 부모참여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등을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교사협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과거 Head start program으로부터 부모참여의 개념이 일찍부터 생겨나 어머니-교사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어머니-교사협력 및 부모참여는 '부모교육'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다는 점(S. Hong, 2008)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수동적인 참여가 주를 이룬다. 예컨대 어머니는 정기 면

담 혹은 학부모 참여수업에 주로 참여하며, 일일교사 등의 적극적인 활동에는 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M. Kang & H. You, 2012).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재능기부를 하거나 활동에 도움을 주는 등의 협력인 상호관계가 보통 이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어머니, 교사 및 기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는 기관의 참여활동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Y. Seo, M. Kwon, & E. Kim, 2006). 이에 따라 어머니-교사협력이 유아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으로 하여금 양육에의 부담감을 낮춰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유아교육 기관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교사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가 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사 역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D. Chung, 2014) 어머니의 기관 참여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M. Cho & J. Bae, 2009) 보고된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현직 교사를 위해 의사소통 기술 및 전문지식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예비 교사를 위해 부모와의 협력에 관련된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함으로써 부모와의 협력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가정의 평균 월수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이 낮은 가정의 취업한 어머니 및 수입이 높은 가정의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가 교사와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시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인 인구학적 배경요인인 자녀수, 어머니의 최종학력 및 가정의 월수입을 통제하고 남편 및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나 실제 어머니가 인지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경제적인 스트레스 등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도 추가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구체화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교사협력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어머니가 자기보고 형식으로 측정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어머니-교사협력이 실제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 3자가 체크한 어머니-교사협력 지표를 사용하거나 어머니에게 뿐만 아니라 교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에의 부모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bidin, R. R. (198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Unpublished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bidin, R. R., & Brunner, J. F. (1995). Development of a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31-40.
- Ahn, S. H. (2004).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parent involve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3), 27-49.
- Bae, Y. J., & Lim, J. Y. (2014).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according to paternal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32*(2), 77-97.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Brummelte, S., Grunau, R. E., Synnes, A. R., Whitfield, M. F., & Petrie-Thomas, J. (2011). Declining cognitive development from 8 to 18months in preterm children predicts persisting higher parenting stress. *Early Human Development, 87*(4), 273-280.

- Bulotsky-Shearer, R. J., Wen, X., Faria, A. M., Hahs-Vaughn, D. L., & Korfmacher, J. (2012). National profiles of classroom quality and family involvement: A multilevel examination of proximal influences on Head Start children's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4), 627-639.
- Buodo, G., Moscardino, U., Scrimin, S., Altoè, G., & Palomba, D. (2013).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izing behavior symptoms in children: the impact of emotional reactivity.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6), 786-797.
- Chae, S. M., Kang, H. S., Lee, H. J., & Shin, H. S. (1999). The effects of spousal support on the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3*(2), 187-195.
- Cho, M. Y., & Bae, J. H. (2009). Discourse analysis on parental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8*(2), 221-234.
- Choi, K. S. (1991).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Silla University Journal, 31*(1), 247-270.
- Chung, D. H. (2014). A study on teacher's human relations in child care cent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3*(1), 321-343.
- Chung, M. J., & Lee, M. R. (2000). Analysis on relative effectiveness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n employed wives' job - and family - related str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1), 115-126.
- Crnic, K. A.,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243-2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iffily, D. (2003). Benefits of family involvement. In D. Diffily (Ed.), *Teachers and families working together* (pp. 52-62). MA: Pearson Education.
- Don, B. P., & Mickelson, K. D. (2012). Paternal postpartum depression: The role of maternal postpartum depression, spousal suppor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Couple and Family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323.
- Drugli, M., & Undhim, A. (2012). Partnership between Parents and caregivers of young children in full-time daycare. *Child Care in Practice, 18*(1), 51-65.
- Dubois-Comtois, K., Moss, E., Cyr, C., & Pascuzzo, K. (2013). Behavior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The predictive role of maternal distress, child attach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8), 1311-1324.
- Epstein, J. L. (2001).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Westview Press, 5500 Central Avenue, Boulder, CO 80301.
- Erdwins, C. J., Buffardi, L. C., Casper, W. J., & O'Brien, A. S. (2001). The relationship of women's role strain to social support, role satisfaction, and self efficacy. *Family Relations, 50*(3), 230-238.
- Haskett, M. E., Ahern, L. S., Ward, C. S., & Allaire, J. C. (2006). Factor structure and validity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5*(2), 302-312.
- Hong, S.-O. (2008). The parents participant of Reggio Emilia schools. *The Journal of Humanities, 13*(2), 69-90.
- Im, W. Y., & Ahn, S. H. (2011).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parent partnership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8*(4), 323-350.
- Jang, Y. A., & Park, J. H. (2009).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attachment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7*(2), 213-232.
- Jeon, M. S., & Yang, N. M. (2013, August). *The relation of work-family conflict of full-time working mothers to depression : Mediating effect of spouse's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aejeon, Korea.
- Jeong, D.-J. (2014). *Effects of the educational beliefs of mother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and partnership with teachers on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M. S., Han, M. K., & Han, Y. K. (2010).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applied the reality therapy mother's stress-dealing style and child-rearing str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2), 229-243.
- Jiun, C. X., Jaafar, W. M. W., & Ghazali, N. 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erceived children's social problem behavior among

- chinese working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6(3), 157-164.
- Jung, J. Y. (2013). The systematic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working mother's self-esteem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7(1), 106-126.
- Kang, M. J., & You, H. J. (2012). Parental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par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2), 25-38.
- Kang, Y.-S., & Kim, J.-S. (2012).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self understanding on parental ability, anger control, and self differentiation. *Journal of Brain Education*, 10, 106-128.
- Kim, G. H., & Kim, H. S.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5 year-old preschooler parent's social economic status and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4), 111-129.
- Kim, H.-O. (2013). The regulating effects of parenting variables on the mother's depression and development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infan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3, 1-21.
- Kim, J. M., Moon, S. M., Kim, Y. J., & Ahn, S. H. (2013).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5), 79-98.
- Kim, K. H., & Kang, H. K. (1997). Research: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K. W., Doh, H. S., Kim, S. W., & Rhee, S. 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5), 101-113.
- Kim, L. J., & Yoon, C. H. (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47-58.
- Kim, M. S. (2005).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The case of those with preschoolers and school-ag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Kim, M. S., & Moon, H. J. (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 Kim, S. R., Choi, H. J., Jeong, K. H., & Lee, Y. L. (2012).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s according to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2), 551-575.
- Kim, S. Y., & Choi, H. Y. (2007).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8), 1-11.
- Kim, Y. J., Park, J. H., & Ahn, S. H. (2012). The effects of early child care teachers'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eacher self-efficacy to enlist parental involvement on parent-teacher partner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5), 71-89.
- Kwon, J. Y., Chung, M. R., & Park, S. K. (2012).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toddl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3), 143-160.
-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NY, US: McGraw-Hill.
- Lee, J. H., & Wui, Y. H.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the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in child-c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5), 139-161.
- Lee, J. O. (2008).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others with infants and those with kindergarteners.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1, 41-81.
- Lee, K. H., & Seo, S.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and infant development: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3), 53-77.
- Lee, M. J. (2006). *Teacher-mother communication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satisfaction rate and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Lee, S. E. (2010). *The effect of working mother's job characteristics, fathers' childcare participation, and parent-care-*

- giver partnership on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M., & Min, H.-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163(2), 219-225.
- Lim, H. J. (2014). A study on infant's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on infant's development between developmental upper and lower group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225-247.
- Liu, L., & Wang, M. (2015).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n China: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psychological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9(1), 20-28.
- Moen, A. L., Holmes, S. R., Bhatia, S. A., & Sheridan, S. M. (2013). *Mental health challenges and parenting attributes in a rural early Head Start sample* (R2Ed Working Paper No. 2013-6). Lincoln: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Rural Education.
- Östberg, M., & Hagekull, B. (2013).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 stressors as predictors of maternal ratings of child adjustmen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4(3), 213-221.
- Owen, M. T., Ware, A. M., & Barfoot, B. (2000). Caregiver-mother partnership behavior and the quality of caregiver-child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413-428.
- Park, H. J., & Moon, H. J. (2013).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for mothers with infants and their effects on parenting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0(3), 81-98.
- Park, J.-S., Park, C.-M., Kim, J.-S., Ryu, H.-S., Yoon, J.-S., & Nakajima, K. (2011).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f husband's child-care on the health-related qol of wife in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5(1), 37-47.
- Ryu, K. J., Kim, Y. J., & Song, Y. S. (2009). Parenting stress with her infant an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 who commit their infants to child-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5(1), 1-23.
- Seo, S. W., & Lee, D. K. (2014).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mother's social support, and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2), 135-158.
- Seo, Y. H., Kweon, M. R., & Kim, E. J. (2006). A qualitative study on parent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6(6), 33-57.
- Sohn, S. M. (2010).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and family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4(4), 267-288.
- Song, Y. J., Lee, J. O., & Kim, C. K.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of mothers with and without jobs: Focusing on psychological and family role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185-206.
- Song, Y. J., Lee, M. R., & Chun, H. Y. (2014). Parenting stress changes in both of continuous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A focus on the effects of the values, knowledge and expectations about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5(5), 15-35.
- Song, Y. S., & Kim, Y. J. (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self-efficac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t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81-203.
- Stone, L. L., Mares, S. H., Otten, R., Engels, R. C., & Janssens, J. M. (2016). The co-development of parenting stress and childhoo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8(1), 76-86.
- Ware, A. M., Barfoot, B., Rusher, A. S., & Owen, M. T. (1995). *The caregiver role in the parent-caregiver partnership: Its relationship to the child care environment*. Indianapolis, IN: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Wen, X., Bulotsky-Shearer, R. J., Hahs-Vaughn, D. L., & Korfmacher, J. (2012). Head Start program quality: Examination of classroom quality and parent involvement in predicting children's vocabulary, literacy, and mathematics achievement trajectories.

-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4), 640-653.
- Yang, E. H., & Choi, H. S. (2013).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3(3), 143-162.
- Yi, J. S., & Choi, Y. H. (2010).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1), 19-32.
- Yu, M., & Kim, K. E. (2016).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4), 1334-1344.
- Yu, W. Y., Choi, J. A., & Lee, S. (1998).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infant's mother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16(1), 51-61.

Received: September 15. 2016

Revised: November 23. 2016

Accepted: December 23. 2016